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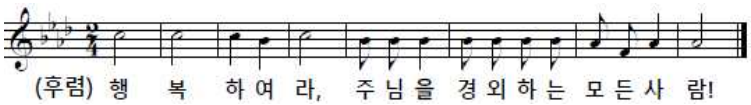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툿찡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잠언 31,10-13.19-20.30-31

화답송 | 시편 128(127),1-2.3.4-5(◎ 1ㄱ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 1테살 5,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5,14-30

영성체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성가 | 입당 24 예물준비 41(25)
영성체 46(159) 파견 446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문귀영 베드로 영혼을 위하여
- 금상연 스테파노
- 한시찬 라파엘 기일미사
- 박공의 베드로 평안한 안식
- 노재준 요한, 안을선 모니카
- 김철영 미카엘
- 레지오 단원의 영혼을 위하여
- 돌아가신 레지오 단원들 영혼을 위하여
- 돌아가신 레지오 단원들 영혼을 위하여
- 돌아가신 레지오 단원들 영혼을 위하여

생미사 지향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웅희 루카 신부님의 영육 간의 건강과 평화를 위하여
- 이웅희 루카 신부님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 송승근 첫 직장 취직을 축하하며
- 박아영 올리바 영육 건강
- 정루하 프란치스코 생일을 맞이하며
- 정루엘 에드워드 생일 맞이하여
- 박창현 생일 축하
- 이루리 영육 건강을 위해
- 이웅희 루카 신부님의 행복
- 맨하탄 신자들의 기쁨과 평화를 위해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1월 15일	장혜윤	정은철	조은화	정은철 조은화	유정옥 정다경	한서희 김수현 양지수 허우현 김민서
11월 22일	김진섭	민완준	이경자	민완준 이경자	진서윤 김종선	김민서 김수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아래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	*신청:Sr.마리루시

공동체 및 본당 행사로
11월 15일(영성특강), 11월 22일(헌혈행사)
산 다미아노홀에서의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이웅희 루카 신부님 송별회 안내

오늘 미사 후, 그 동안 저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사랑과 정성을 나누어 주신 루카 신부님의 송별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을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 신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미사 후 ~ 1:00 PM. **장소:** 프란시스룸
* 다미아노홀 사용 불가 관계로 프란시스룸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6년 '영성의 해' 제6차 특강

오늘	**아래성당** (12:00AM-1:30PM)	Sr. 마리율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Rite of Entry'(OCIA 한국어팀)

세례성사로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견진성사로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예비자들이 성사를 받기 위한 본격적 준비과정에 들어갑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오늘, 오후 5시 미사 중 (OCIA영어팀과 연합)
대상: 2027년 세례/견진성사 예비자들(대부모 동반)

2027년 주보 광고 신청

2027년 주보 광고 신청 받습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마감 : 11/29(주일)까지,
게재비: $300(수납:재무데스크)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주보의 기존 광고는 올해 말까지 지속됩니다.

2026 사랑의 음악회(주관:하늘처럼 성가대)

일시: 11월 21일(토), 7:00 PM
장소: 대성전(티켓 수령 후 6:30PM부터 입장가능)
티켓 및 구매방법: 성인 $25, 청소년 $15 (12세 이하 무료)
- 현장 구매(매주일 미사 후 산다미아노 홀 티켓판매처)
- VENMO: @Pureum-Jeon
  ZELLE: 646-565-1746(Pureum)
- Check, Venmo, Zelle 의 **Memo** 에 "**이름과 음악회 티켓 갯수**"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예: 전푸름 어른 2 청소년 1 $65)

후원금 기부 : Cash or check: 후원자 성함 또는, 익명
Venmo: @Pureum-Jeon / Zelle: 6465651746
(Check, Venmo, Zelle의 Memo에 **"후원자 성함"** 과 **"2026 음악회"** 기입 바랍니다)

* 공연 후 간단한 다과회가 있습니다.
* 음악회 수익금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마이클 저지 OFM 빌딩 펀드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찬양기도회: '푸른 올리브'

함께 모여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기도회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주제: '청하라'(마태 7, 7-8)
일시/장소: 11월 28일(토), 4:00-5:30 PM, 아래성당
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한인공동체 설립 3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지난 주(11/8): 3,300단 **누적 집계:** 6,222단
주관: 맨하탄 한인공동체 꾸리아(Curia)
문의: 347-633-3767 (꾸리아 단장 윤 루시아)

오늘의 말씀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마태 25,21)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이경언 바오로 (1792-1827)



이경언 바오로는 1792년 한양의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자란 그는 1801년 신유박해로 누나 이순이 루갈다를, 이듬해에는 형 이경도 가롤로를 잃었다. 이후 집안은 가난에 시달렸지만, 그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다. 몸이 허약하고 잦은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늘 온화한 태도를 잃지 않았으며, 냉담한 교우들을 권면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데 힘썼다. 명도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회 서적을 필사하고 성화를 모사해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북경을 오가는 밀사들을 지원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헌신했다.

1827년 정해박해 때 교회 서적과 성화를 전파한 사실이 알려져 체포된 그는 전주로 압송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옥중에서도 가족과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신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고백했다. 끝내 형벌로 인한 상처를 이겨 내지 못한 그는 1827년 6월 27일 35세의 나이로 전주 옥중에서 순교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209, 가해, 2026. 11.15.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PETIQUE SALON
DOG GROOMING · DAYCARE · BOARDING
Petiquesalon@gmail.com
강동호 베드로
917-419-7444
444 2nd Ave, New York, NY 10010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Colleen Insook Lee,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RESTORE STUDIOS
Dr.Iris M. Kim, PhD
▸레드라이트 테라피 ▸컴프레션 마사지
▸BREATHWORK ▸라이프 코칭
(212) 796-7414 6 East 39th St, Suite 300 New York, NY 10016
info@restorestudiosny.com

다시 만난 신약 성경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콜로 3,1)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신약 성경의 서간들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교리에 대한 부분과 실천적인 훈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로새서도 그렇습니다.

교리 부분에서는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 경고합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신자들 사이에 그릇된 가르침이 퍼지는 일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신앙을 부인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여기는 이들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콜로새 신자들 사이에는 유다교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유다교에서 지키던 음식 규정이나 축제일과 안식일에 대한 문제 등에 매여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헛된 철학”이나 “이 세상의 정령들”(2,8)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만물에 깃들어 있는 정령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여겼던 믿음을 지칭하는 듯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들을 버리지 못한 것이지요.

이런 여러 종류의 가르침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사상의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천상 존재들이 나름대로 위계를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는 그 틀 안의 한 요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 콜로새서에서는,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2,9)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충만하다는 것이 그분의 특징 입니다. 90%를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셔서 10%를 다른 데서 보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권세와 권력들의 무장을 해제”(2,15)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세력들은 그리스도께 종속됩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는 머리이신 그분께 단단히 붙어있는(2,19 참조)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콜로새서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3,1)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 콜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세례로써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동참했다고 말해줍니다. 세례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새 인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3,5)을 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3,12), 그리고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3,14)인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이미 죽고 부활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렇게 새로워져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현세의 것들에 연연하고 나 자신의 이익에 매여 있으며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면 그 결과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207, 가해, 2026. 11 1.

<2026년 제11대 사목협의회 임면 공지>

* 사목회 회칙 임면에 관한 한인공동체 사목위원회 회칙 제2장 제5조 1-3항, 제4장 제20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지함.

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부회장 - 김신욱 토마스
총무 - 전푸름 세레나
서기 - 면) 오정민 세례자요한, 임) 총무가 겸임

구역분과장(총구역장) - 윤숙자 루시아
재정분과장 - 정다경 마리아
교육분과장 - 최병은 루치아
전례분과장 - 김승연 안나
선교분과장 - 백승민 안드레아
사회복지분과장 - 이경철 가브리엘
청년분과장 - 면) 진현종 빈첸시오, 임) 부회장이 겸임
시설분과장 - 조준원 레오

2026년 특별위원 위촉
한인본당 시노드 위원: 면) 김미화 마리클레어
한인본당 시노드 위원: 임) 공석

* 후임 사제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부임하여 위 사목협의회와 인수인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